



부산대학교 열린무대 『마당』 제17회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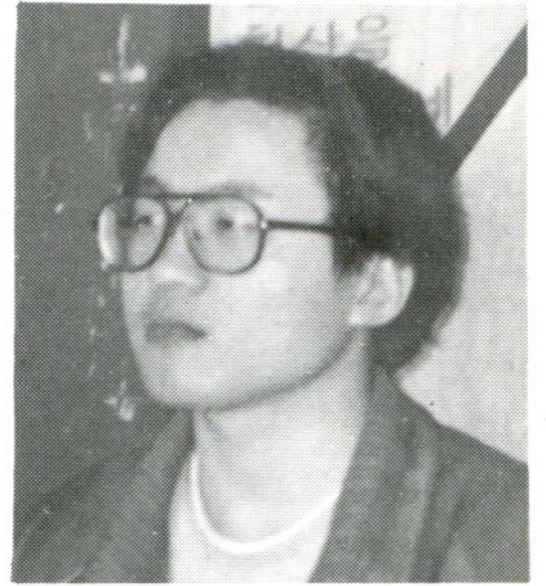
# 사월구일



- 때 / 1992년 3월 5일 목, 6일 금 3시, 5시  
7일 토 3시
- 곳 /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4층 대회의실

## 고민하면서

흔히들 불감증 시대라 한다.  
 자신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무채색 감정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  
 이는 권력자들이 의도하든 하지않든, 체제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으며 가려진 사실들의 조류속에서  
 안주하는 맹인을 양성시켜 왔다.  
 폭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 폭력에 의해 감춰져왔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불감증의 시대에는 계속되어  
 지리라 생각한다.  
 지금도 어느 구석에선 허위의 그물이 진위를 가리려고  
 애쓸 것이다.  
 오늘 이 한편의 공연속에 사실에 대한 진상을 담아  
 담담하게 선보인다.  
 그리고 지난 겨울 살아 있는 현실을 만들기위해  
 투쟁한 모든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한다.



연출 / 임 태 섭  
 (행정학과88)

## 작업하면서

우리들 중 누구하나도 연극에 있어 자랑할만한 경력을  
 가진 자가 없다.  
 애초에 “모두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간다”는 큰 뜻 하나로  
 힘차게 출발했지만 예상대로 힘에 겨운 작업이었다.  
 무대 뒤에서 힘들어 하는 배우들. 그럴수록 괴로와했던  
 연출님.....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서로의 믿음, 사랑, 열정  
 그리고 피터지는 고민으로 해결해 나갔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따뜻한 겨울은 지나갔다.  
 이제, 우리들의 땀과 눈물과 웃음과 약간의 막걸리  
 냄새가 배인 불품없는 명석관에 『4월 9일』을 담아  
 아무 댓가도 바라지않고 여러분앞에 내어 놓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공연완성 그날까지 전진! 전진! 하자.”  
 매일 씩없이 불러 재겼던 이 노래가 지금 내 귀에 맴돕니다.



무감 / 이 경 화  
 (지질학과 90)

경양식 · 차와음료 · 칵테일

# 아침바다

SEA IN THE MORNING

T. 514-0378

그 신선함이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구서동      부산대학      온천장

아침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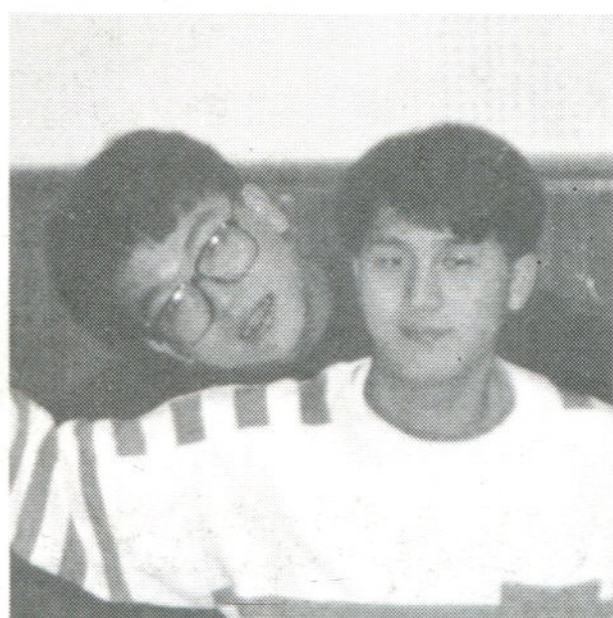
# 무대뒤에서 땀흘린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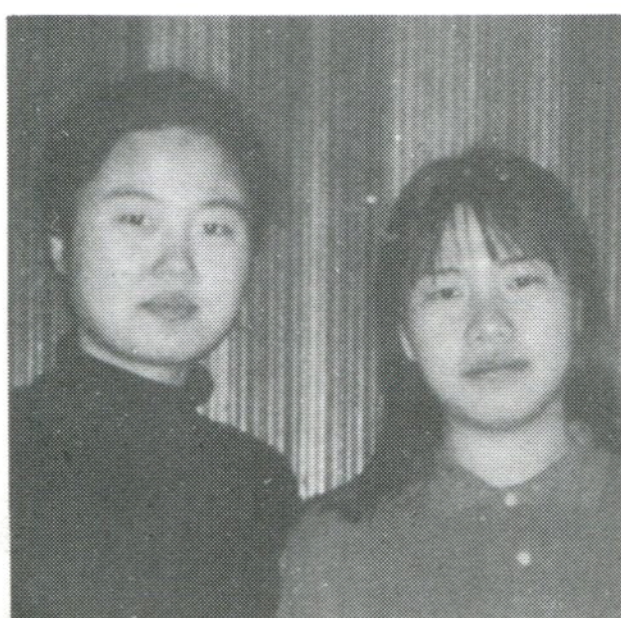
음향·효과 / 김선환 (통계90)  
김영희 (물교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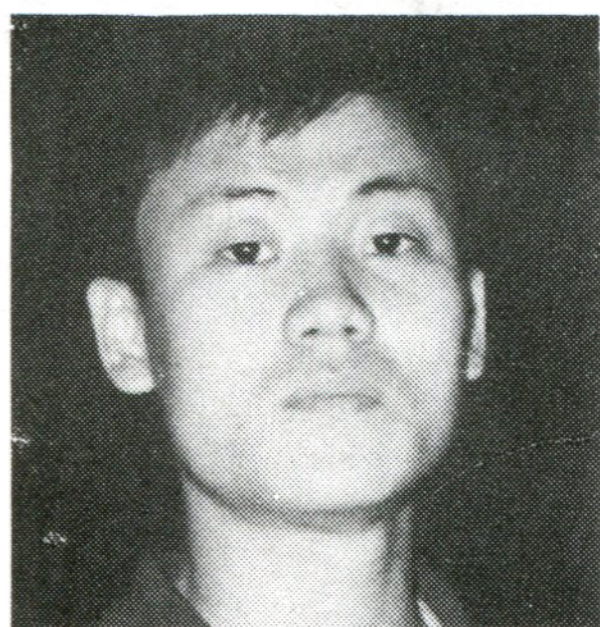
소품 / 김 영 숙  
이 기 선



장치 / 김 백 철  
안 문 기



의상 / 권 경 선  
윤 정 미



조명 / 신 중 철(독교86)  
박 재 현

진행/  
이 호 (컴퓨터 86)  
이승현 (무역 87)  
손경목 (회계 89)  
조강미 (교육학 90)  
한 현 (신문 91)  
강성수 (토목공학91)  
정미선 (생물교육91)

## ● 배우들의 원소리 ●

배우1 : 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는 고문을 당했던 말입니다.

배우2 / 보이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배우3 / 피고인은 일자불상, 시간불상, 옥호불상의 시내 변화가 술집에서..... ?

배우4 / 꽃이 핀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꽃은 분명히 피어난다.

배우4 /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짓밟혀 죽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만 있었 습니다.

배우6 / 어이! 공과장. 이 새끼 한번 더 돌려달라는데.

배우7 / 우리는 벌써 그분들의 이야기를 마치 꿈속의 일인 것처럼 잊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 무참한 폭력의 정신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배우6 / 자유: 정의·진리는 대학의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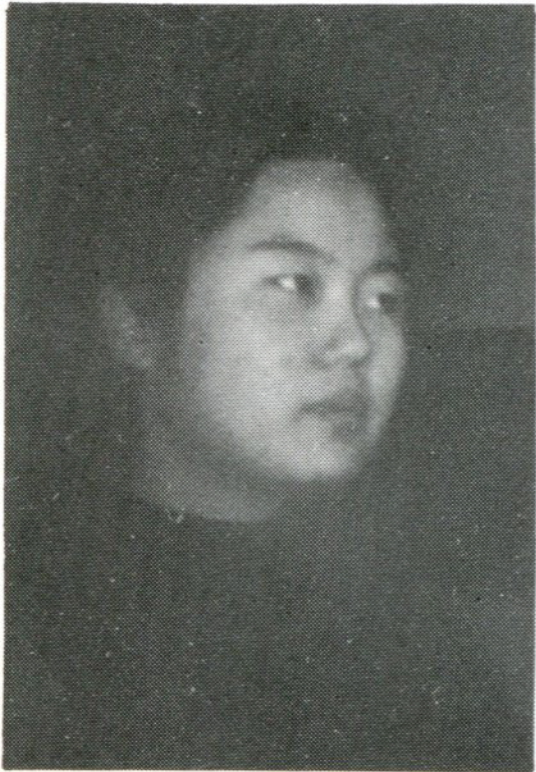
개주  
77  
57-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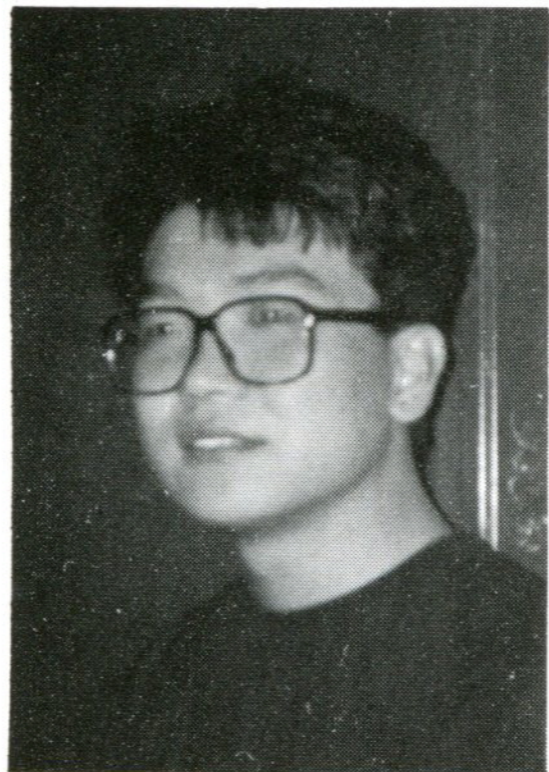
風茶兩酒  
바람부는 날  
차를 마시고  
비 오는 날  
술을 마신다,

부대정문.  
객주 ■  
우체국.

무대위에서 땀흘린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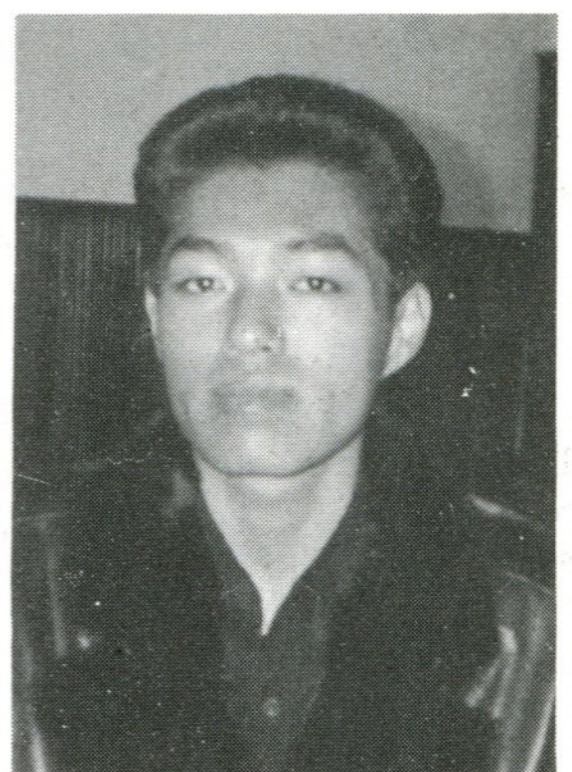
배우 1 / 권 경 선  
(영어영문 91)  
시인, 피해자,  
장준하, 사형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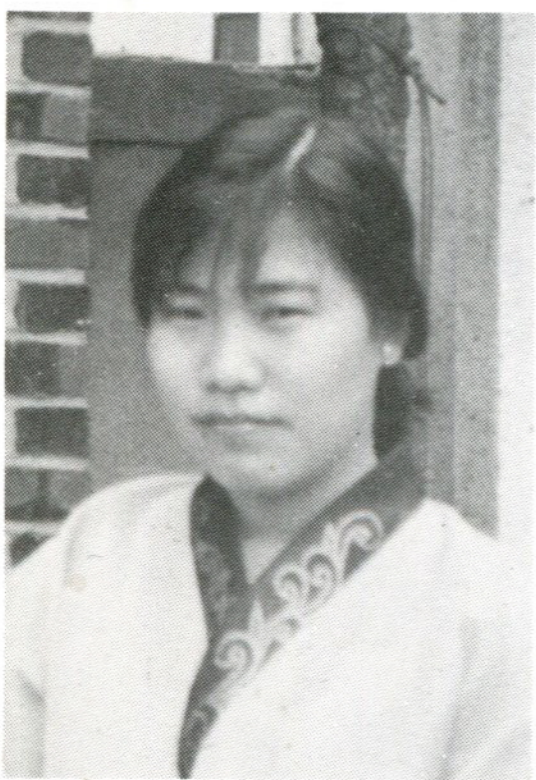
배우 2 / 안 문 기  
(기계공학 88)  
각하, 민방위대원,  
재판장, .....



배우 3 / 이 기 선  
(수학교육 90)  
부장, 꼬마, 검사,  
해설자, 아나운서.....



배우 4 / 박 재 현  
(경영학 91)  
해설자, 심문관, 장관,  
.....



배우 5 / 윤 정 미  
(생물교육 91)  
아내, 해설자, 아나운서  
.....



배우 6 / 김 영 숙  
(생물교육 90)  
심문관, 꼬마.....



배우 7 / 이 경 화  
(지질학 90)  
해설자, 아나운서,  
심문관, 꼬마.....



배우 8 / 김 백 철  
(정치외교 90)  
대학생, 피해자,  
민방위대원, 목사.....

COFFEE HOUSE

**you**®

MY GOOD COFFEE

T. 512-6284